

중년여성의 사회적관계망과 실버타운 선호도 연구*

A Research on the Social Relation Network of Middle-aged Women and Preference for Silver Town

경남대학교 실버산업복지학과

전임강사 : 하 춘 광**

Dept. of Silver Industry & Welfare, Kyungnam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Ha Choon Kwa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how main social relation network of middle-aged women such as family, friends and neighbors, etc affects the preference for silver town. For this objective, structured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309 middle-aged women at the age of 40-59 years old living in Seoul and new cities of metropolitan area. Statistics such as ANOVA, Pears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adopt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main result of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housewives showed higher preference for silver town than people involved in other occupations.

Second, though the relation of friends and neighbors among the social relation network of middle-aged women affected the preference for silver town, that of family did not affect significantly.

The result of this research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adopt policy considering the relation of friends and neighbors among the social relation network of middle-aged women so as to activate silver town.

Key Words : 중년여성(Middle -Aged Women), 사회적관계망(Social relation network), 실버타운 선호도(Preference for silver town)

* 본 연구는 경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주저자, 교신저자 : 하춘광(hachkw@kyungnam.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 사회는 오늘날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로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도 2000년 7월을 기점으로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했음을 발표했으며, ‘고령사회(Aged society)’로의 진입도 당초 예상보다 3년이 빠른 2019년으로 전망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동태적 변화가 선진국 형으로 바뀌고 있음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수적 증가는 인구구성비의 불균형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부양부담의 증가와 노인질병의문제, 은퇴에 따른 노인빈곤, 역할상실 등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킨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노인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 사회에 노인문제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정 내의 효 규범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나타난 핵가족화 현상과 ‘효’ 사상의 퇴색은 전통사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노인문제를 부각시켜 이제는 노인문제가 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특히 확대가족제도를 기본으로 노인을 가정 내에서 경제적, 정서적, 신체적으로 봉양하는 가족부양을 원칙으로 했던 전통사회의 노인부양체계¹⁾가 흔들리면서(박승희, 2002: 75-80) 노인부양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대두하게 되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노인들은 대체로 가정에

서 자녀들에 의해 부양받고 있다고는 하나 이미 가정 내에서 뒷사람으로 공경을 받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가사 결정권자의 위치에서도 밀려나고 있으며 세대간의 차이, 고부간의 심리적 갈등 등은 노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독과 소외를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정자, 2001: 225)

이처럼 노인세대의 급속한 권위 상실을 직접 목격한 세대인 지금의 중년여성은 차후 자신들의 문제가 될 노후부양문제를 지금의 노인세대와는 달리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임으로서 이에 따른 다양한 대책과 경제적인 비용부담을 일찍부터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 양상으로 노부모와 기혼자녀세대가 서로 떨어져 단독으로 거주하려는 별거 증가 현상이 뚜렷해졌다. 그러한 현상은 부모들이 그동안 자녀양육 때문에 하지 못했던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녀들로부터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생활을 할 기회를 제공하였고²⁾ 기혼자녀들의 경우에도 노부모와 별거하며 핵가족 중심의 편안한 생활을 추구하게 됨으로써 노부모와의 동거의식이 갈수록 약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금의 중년여성들은 노후의 주거문제를 단순히 거주 개념이 아닌 자신의 노후 복지까지도 고려하여 선택 할 것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질 것이며 그 가운데서도 최근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실버타운에 대한

1) 노인부양문제는 핵가족화와 가정에서 노인부양의 역할을 담당했던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 등 사회환경의 변화로 전통적인 가족부양체계가 약화되어 감에 따라 보다 심각한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2) 자녀가 있음에도 동거하지 않는 노인은 지난 1970년대 초 7%, 80년대 초 18-19%, 90년대 초 40%, 2000년대 초 53%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2000). 앞으로 2010년대 초에는 70%, 2020년대 초에는 서구사회와 비슷한 90%에 이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실천현장의 변화를 반영하듯 학문영역에서도 실버타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데, 그 가운데 중년층을 대상으로 노인들에게 여가, 보건, 복지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미래 노인주거복지의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실버타운의 발전 방향 및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들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최근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박재현, 2001; 조인순, 1998; 남혜정, 2000; 정기남, 1998; 손재원·한기중·이특구, 2001; 한희경·오덕성, 1999; 고경필, 1997; 최성재, 1999; 송복희, 2002).

이들 선행연구들은 실버타운 선호도를 중년층의 라이프스타일을 통해 예측해보거나, 공간구성, 공간조경, 실버타운 입주비용, 입지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버타운 선호도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중년여성의 사회적 관계망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의 상호관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온정주의적 인간관계는 전반적으로 약화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중년여성은 가족, 친구, 이웃 등 일차적인 사회적관계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세대이다. 따라서 기존의 사회적관계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후주거계획은 신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중년여성의 실버타운 선호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관계망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이제 시작단계에 있는 실버타운이 사회적관계망을 고려한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로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더불어 실버타운 수요예측 및 활성화방안, 그리고 실버타운을 운영할 계획이 있는 운영자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유용한 기초자료

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년 여성의 가족관계의 정도가 좋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는 낮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2. 중년 여성의 친구관계의 정도가 좋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다.

연구문제 3. 중년 여성의 이웃관계의 정도가 좋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년여성과 사회적관계망

사회적관계망이란 가치를 공유하고 의미를 공유하는 관계망이다. 사회적관계망에는 가족, 친구, 이웃, 동료(Co-Worker) 그리고 공식적인 관계 등 다양한 인간관계가 포함된다. 사회적관계망은 국가마다 문화나 정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개인의 삶이 공동체의 목표와 얼마나 일치했는지에 따라 그 가치와 의미를 평가하고 인정해 왔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사회적 관계망의 크기가 크고 사회적 관계로부터 많은 이득을 얻는다(Antonucci & Akiyama, 1987).

현재의 중년여성은 그동안 한국사회의 근대화 영향을 받아 다소 합리적이고 개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인간관계를 중하게 여기는 세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적관계망은 중년여성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중년여성의 사회적관계망 가운데 먼저 가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한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가족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가 개인의 목표가 되기도 하며, 가족 구성원을 통해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한다. 즉 개인을 가족공동체의 한 구성원으로 보는 것이다. 중년여성의 경우는 특히 결혼한 자녀와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다른 사회적 관계에 비해 큰 영향력을 미친다.

중년여성에게 친구관계는 친척관계처럼 영구적인 속성을 갖지 않고, 이웃관계와 같이 대면적인 접촉을 갖지도 않으므로 구조적으로는 가장 약한 유대관계이다(Litwak & Szeleny, 1969). 그러나 친구는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자발성이 있고 공통의 관심과 호혜성, 동등성이라는 특성이 있으므로 중년기 여성의 주요 사회적관계망이 되고 있으며(Arling, 1976), 여성은 남성보다 친구의 수는 적지만 우정이 더 깊고 풍요로우며(Boot, 1971), 물질적 지원보다 정서적·정보적 지원의 교류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형성된 친구관계는 개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년여성의 이웃관계는 정서적·물질적 지원의 상호교류보다는 지역적 근접성 때문에 서로의 일을 도와주는 서비스 교류가 많이 이루어지고(Litwak & Szeleny, 1969) 각종 기능 중에서 사교적 기능이 가장 활발하며 다음으로 의례적 기능, 상호부조의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여성은 남성보다 이웃관계의 빈도가 잦고 그 의미도 중요하며 중년기에 도달할수록 접촉하는 이웃의 수가 증가하며 이웃의 사교적 지원 및 일상생활을 많이 공유하게 된다(신기영, 1990). Arling(1976)은 중년기의 이웃관계는 외로움과 격정거리를 경감시켜 주고 자신이 '유용하다'는 느낌을 갖게 해준다고 하였으며 이 관계는 공통의 관심과 생활양식에 근거를 두므로 더 만족감을 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웃관계망의 정도는 주요한 인생의 선택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실버타운 선호도의 정의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버타운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대한 개념 정의를 하고자 한다.

먼저, 실버타운은 다른 주거공간과는 달리 노인들만의 독특한 신체 기능적 특성, 미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활동 영역을 반영한 종합시설로서 그 규모와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특히 대규모 실버타운은 한 개의 시설이 아니라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양로시설, 요양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시설들이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형성된 공동주거구역으로(이인수, 2003), 노인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인 시설계획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며, 커뮤니티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휴양 등 주거와 서비스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거시설단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버타운을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노인주거복지시설 중 유료양로시설로 한정하여 정의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태도와 행동 간에 상관성이 있다는 이론적 근거를 통하여 실버타운 선호도에 대한 개념을 태도의 인지적 요소와 감정적 요소로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왔다. 이들이 태도를 중요시하고 이에 대하여 연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태도를 알면 이를 기반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회학자들 역시 태도를 앎으로써 행동을 예측할 수 있다고 믿어 왔는데(Aizen

and Fishbien, 1980; Ajzen 1991, Fazio and Zanna, 1981; Petty and Caciopp, 1986) 그들은 태도가 행동을 유발하거나 행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봄으로써 태도를 측정한다.

태도의 구성요소는 첫째, 인지적 요소로서 이는 어떤 태도대상에 대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지식, 의견, 생각으로 구성되는데 그러한 신념이나 지식은 반드시 옳거나 진실일 필요는 없다(Hawkis, Best and Coney, 1983: 455). 둘째, 감정적 요소로서 태도대상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개인적인 느낌과 감정 및 정서적 반응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상에 대한 대부분의 신념은 감정적 반응이나 평가와 관련되는데 이때 개인의 성격, 상황 및 문화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 셋째, 태도의 행동적 요소로서 개인이 태도대상에 대한 특정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나 경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마케팅에 서는 구매의도(intention)로 본다.

실버타운 선호도와 입주행동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근거는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지만 실버타운 선호도와 입주행동의 일치를 보여주는 사례를 실버타운 입주노인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 근교에 있는 레저월드에는 부유층 노인들이 집중거주하고 있는데 이 노인층락을 선택한 이유는 범죄 발생률이 미국에서 가장 낮고 노인들에게 시설의 편리성을 제공한다는 정보를 통하여 생활의 편리성과 함께 범죄로부터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판단하여 입주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것은 시설에 대한 선호도가 입주행동으로 연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유료양로원 거주노인과의 직접면담을 통한 한 연구(김홍란, 2000: 36)에서도 실버타운 선호도가 입주행동으로 나타난 경우를 찾아 볼 수 있는데 유료양로원에 대한 정보를 접하거나 유료양로시설을 직접 방문한 경험이 있고, 금

정적 태도를 나타낸 사람들이 입주행동을 보였다. 실버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대인 면접을 한 또 다른 연구(윤희영, 2000: 32)에서도 실버타운 거주 결정에 노인 자신이 결정적으로 참여한 경우가 80.7%에 이르렀는데 이들 노인들은 실버타운에 입주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매우 능동적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였다고 하였고 실버타운이 제공하는 여러 편의시설 및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좋아서 선택하였다는 경우도 전체의 44.6%를 차지하고 있어서 실버타운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노후 주거선택에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년여성의 실버타운 선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그들의 노후 실버타운 선택 행동을 파악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3. 사회적관계망과 실버타운 선호도

시설입소 관련요인들을 조사했던 연구들 중 사회적관계망 변수를 고려한 연구는 거의 없었지만 Ulrike Steibachs는 가족, 친구, 이웃 등 사회적관계망을 강조하였다(이정애, 1998; 김홍란, 2000).

가족요인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가족구성원의 존재가 시설입소를 예방하는 최상의 대책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이 시설에 수용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Noelker and Harel, 1978; 고정자, 1980; Hamovitch, 1969; 지순, 1985; 최순남, 1995; 최혜경, 1995).

양로시설 입소노인들의 입소결정요인을 보면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혹은 돌보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을 하고 있고, 자녀와 같이 사는 것이 불편할 것 같아 가족 별거를 선호하는 집단이 가족동거를 선호하는 집단 보다 실버타운을 선호하였고(김영부, 1994),

가족들보다 자신들에게 필요한 원조를 더 많이 제공할 것으로 인식한 실버타운에 스스로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양로시설 입소 노인들과의 면접을 통한 연구에서(윤연희, 1999; 김홍란, 2000; 이인수, 2003) 자진입소가 아닌 노인들은 입소를 결정한 배경으로 자녀가 없는 경우이거나 혹은 자녀가 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움 때문에 입소를 하였다고 하며, 자녀와 동거하면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에 공통적으로 겪는 스트레스가 너무 컸고, 자식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노인부양이 유기에 가까울 정도로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입소를 결정하였다고 한다. 더구나 자녀들에 의해 영문도 모르고 입소한 경우도 있었으며, 자녀의 권유로 입소하는 노인들도 있었다. 이렇게 입주한 노인들의 입주 후 나타난 가족에 대한 배신감이나 심리적 갈등은 매우 극심하였으며 실제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 중 39.8%가 자녀와 심한 갈등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윤희영, 2000: 49).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공통점은 가족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시설입주를 결정하게 되었다.

친구요인과 관련하여 시설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권희수, 1996) 자녀와 친척과의 접촉이나 연락정도는 시설노인의 우울함 정도에 따른 가시적인 차이를 보이지 못한 반면 친구와의 만남이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우울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시설노인에게 있어서 가족과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연령이 비슷한 친구가 대리가족성원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친구는 비슷한 생활방식과 경험, 가치관을 공유하기 쉽고 상호선택과 필요에 의해 자발적이고 동등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어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료노인주거시설 입주희망 이유를 묻는 질

문에 연령과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과 생활하고 싶어서 등 친구관계를 입주희망의 이유로 들었는데(김홍란, 2000) 가족들과 함께 살아도 하루 종일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어 외로워서 친구들 만나기 좋은 곳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생각으로 시설에 입주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입주를 위한 결정도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경우가 나타났는데 친구들과 유료양로원을 방문해보고 양로원생활이 안정되고 편해 보여서 함께 시설입소를 결정했다고 하여 친구관계가 입소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도 실버타운 입소노인의 주요한 입소배경이 동년배 집단과의 교류를 통한 외로움의 해소로 나타났다. 유료양로원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에서(윤연희, 1999: 86) 대체적으로 입주노인들끼리는 왕래도 잦고 이야기 거리도 풍성하다고 한다.

이웃요인을 살펴보면, 노인들의 유료노인주거시설 입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이나 캐나다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의 약 50%가 지난 25년간 거주해 오던 근교지역에 살고 있으며 양노원이나 요양원, 장기보호시설 등의 노인주거시설에 입소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60%이상이 거주하던 집을 중심으로 반경 25마일의 근린지역에 있는 시설에 입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는데(Randolph Hill Nursing Center, 1994), 이 연구에 의하면 노인들이 이사 가지 않고 오랫동안 한곳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웃, 친구와의 사교활동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노인들의 심리에 자리 잡고 있는 생의 중요한 관심사는 믿을 수 있는 친구와 이웃들과의 흥허물 없는 교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노인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기의 집을 떠나 노인전용 주거시설에 입소할 때 그 시설의 입지조건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집에서 멀지 않은 근린지역이 되며 이웃을 중요시하는 것은 그곳에 오랫동안 지속해왔던 사회적관계망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은 중년여성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사회적관계망 중 어떤 변수가 실버타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조사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의 5개 신도시에 거주하는 40세 이상~59세 이하의 중년여성으로 제한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의 5개 신도시를 조사대상으로 한 이유는 실버타운은 도시형 산업으로(원유희·윤기열, 2001: 25)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가 집적되어 있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야만 사업의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시화의 경험을 가진 서울 및 경기도의 5개 신도시 중년여성의 실버타운 선호도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향후 노인이 될 중년여성은 현재 노화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세대이며 미래지향적인 노인주거시설의 주된 소비자가 될 계층이다. 또한 현재의 노인보다는 주거와 관련된 문제해결 가능성에 대한 인지능력이 높고, 의사표현도 보다 자유로우므로 이들 연령층의 실버타운 선호도는 미래의 유료노인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제적 자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4년 2월 중순부터 2004년 4월 중순까지였다. 자료는 구조화된 자기보고형 설문지(self report) 약 350

부 정도를 배포하였고, 320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부실설문지 11부를 제외한 309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 조사도구

1) 가족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가족관계는 가족 간의 지지와 유대관계로 정의한다. 이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김인숙(1994)의 연구 중 가족관계망에 관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은 3문항을 제외하고 12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원 척도에 수정을 가했으므로 이에 대한 타당화 작업을 다시 하였다. 타당도 검토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가족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우리가족은 자주 모임을 갖는다' 등 3문항, 가족도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가족과 의논한다' 등 3문항, 가족수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 6문항 등 3가지 하위개념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각 문항의 다중 상관계수값을 검토한 결과, 지나치게 크거나 작은 값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문항이 내적으로 일관된 구조임을 반영하는 증거이다. 따라서 타당도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본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0.817로 나왔다.

2) 친구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친구관계는 다양한 사회적관계망 중에서 주거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으로 가장 가까운 막역한 친구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이영옥(1997)의 연구에 나와 있는 문항들을 재해석

하여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문항을 개발하였으며 총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은 것이다. 타당도 검토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친구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는 나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등 4문항, 친구도움을 측정하기 위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친구의 조언을 받는다' 등 4문항, 친구수용을 측정하기 위해 '친구의 문제는 곧 나의 문제다' 4문항 등 총 12문항, 3가지 하위 개념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각 문항의 다중상관계수값도 적절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07로 나왔다.

3) 이웃관계 척도

본 연구에서 이웃관계는 이웃들의 지지와 유대관계로 정의한다. 그 내용은 이웃공동체 구성원 상호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웃영향, 이웃구성원 간에 도움을 주고받는다든 이웃도움, 이웃공동체에 속해 있음으로 해서 느끼게 되는 이웃수용으로 구성된다.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준(1998)이 공동체의식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사용한 문항 중 지역사회와 관련한 느낌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은 총 12문항이고, 나머지 3 문항은 연구자가 본 연구에 맞게 개발하였다. 이웃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웃과의 대화가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된다' 등 5문항, 이웃도움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웃끼리 단결하면 어떤 문제도 잘 해결 된다' 등 5문항, 이웃수용을 측정하기 위해서 '나는 지역사회의 일원이라는 느낌이 든다' 등 5문항으로 하여 총 3개영역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당도 검토를 위해 15문항에 대한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이웃을 구성하는 3요인구조가 도출되었으며 이 3요인을 이웃관계의 이론적 개념을 측정하는 측정

변수로 보았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0.823으로 나왔다.

4) 실버타운 선호도 척도

본 연구에서는 실버타운 선호도를 실버타운에 대해 갖고 있는 호감, 믿음, 의견, 생각 등으로 정의한다. 이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조인순(1998)의 연구 중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 후 개발하였으며 총 14개 문항 수로 구성하였다. 측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타당도 검토를 위한 요인분석 결과,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노후에 품위를 유지할 것이다', '실버타운은 노후를 보내기에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실버타운은 편안하고 편리한 노후시설이다' 등 '실버타운에 대한 긍정적 평가' 9문항, '노인들만 거주하는 실버타운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늙는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등 '실버타운에 대한 부정적 평가' 3문항, '실버타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실버타운에 대해 잘 알고 있다' 등 '실버타운경험' 2문항의 3가지 하위개념으로 분류되었다. 그리고 각 문항의 다중상관계수값도 적절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타당도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98 로 나왔다.

5)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학력, 연령,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 등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분석방법

조사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를 계산하였고 타당도 분석을 위해서는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요인 분석 모형은 공통요인분석 모형을 선택하였고 요인의 수는 이순목(2000)의 제안에 따라 누적분산비율, 스크리검사, 해석가능성을 모두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 백분율, 평균 및 표준편차 계산을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서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도 수준에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ANOVA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가설검증에서는, 변인간의 상호관련성 및 인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상관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영가설 기각여부는 유의수준 $\alpha=0.05$ 에서 판단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대상자 309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 초반이 29명(9.4%), 40대 후반이 142명(46.1%)을 차지했으며, 50대 초반이 89명(28.9%), 50대 후반이 47명(15.3%)로 나타났다. 이들의 학력분포를 보면 고졸 이하가 166명(53.9%)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대학졸업이 103명(33.4%)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문대졸 32명(10.4%), 대학원 이상 학력 소유자가 7명(2.3%)이다. 건강상태를 보면 건강이 좋다는 응답자가 158명(51.1%), 보통이다 144명(46.6%), 건강이 나쁘다는 응답자가 6명(1.9%)으로 응답 여성들의 건강상태는 대체로 양호함을 알 수 있다. 소득수준을 보면, 150만원 미만이 71명(23.0%), 150만원-200만원이 48명(15.5%), 200만원-250만원이 46명(15.1%), 250만원-300만원이 48명(15.7%), 300만원 이상이 92명(30.2%)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응답자들의 직업을 살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의 특성	빈도	%
연령	40대 초반	29	9.4%
	40대 후반	142	46.1%
	50대 초반	89	28.9%
	50대 후반	47	15.3%
	무응답	1	
학력	고졸이하	166	53.9%
	전문대졸업	32	10.4%
	대학졸업	103	33.4%
	대학원 재학 이상	7	2.3%
	무응답	1	
건강상태	좋음	158	51.1
	보통	144	46.6
	나쁨	6	1.9
	무응답	1	
		150만원 미만	71
소득수준	150만원이상-200만원미만	48	15.5
	200만원이상-250만원미만	46	15.1
	250만원이상-300만원미만	48	15.7
	300만원 이상	92	30.2
	무응답	4	
직업	공무원	46	14.9
	사무직/관리직/ 경영직/전문직	27	8.7
	자영업	42	13.6
	전업주부	112	36.2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 노무직	64	20.7
	기타	18	5.8

%는 무응답을 제외한 값임

펴보면, 공무원이 46명(14.9%), 사무직/관리직/경영직/전문직이 27명(8.7%), 자영업이 42명(13.6%), 전업주부 112명(36.2%),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노무직 64명(20.7%), 기타가 18명(5.8%)으로 나타났는데 전업주부가 많은 것은 이 연구의 대상자가 중년여성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 조사대상자의 실버타운 선호도 차이 분석

다음으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실버타운 선호도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보기 위해 ANOVA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령 집단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조희자, 2001; 박

영옥, 2001)는 연구가 있는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김기수, 1994)는 연구도 있어 연령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는 선행연구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학력과 건강상태 역시 집단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소득수준은 선행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일수록 실버타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조인순, 1998, 조희자, 2001) 본 연구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직업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전업주부와 생산직/기술직/서비스직/노무직에서 실버타운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실버타운 선호도 차이분석

		응답자의 특성	평균	표준편차	F
연령		40대 초반	47.069	5.775	.211
		40대 후반	46.387	7.706	
		50대 초반	47.685	6.929	
		50대 후반	47.042	7.012	
학력		고졸 이하	47.343	7.936	.450
		전문대졸업	46.595	6.379	
		대학졸업	47.203	5.858	
		대학원 재학이상	44.428	5.912	
건강 상태		좋음	47.430	7.296	.464
		보통	46.625	7.165	
		나쁨	49.333	3.386	
소득 수준		150만원 미만	54.436	8.578	1.355
		15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47.770	6.116	
		200만원 이상 - 250만원 미만	47.304	5.936	
		25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8.083	7.175	
		300만원 이상	47.413	6.895	
		공무원	45.913	5.569	
직업		사무직/관리직/경영직/전문직	45.111	9.548	2.514*
		자영업	44.928	6.240	
		전업주부	48.151	6.615	
		생산직/서비스직/노무직/기술직	48.515	7.831	
		기타	46.388	8.125	

* P < 0.05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론적 검토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망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검증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우선 본격적인 모형검증에 앞서 연구변인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변인간의 관련성 및 다중공선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결과를 보면 일

(표 3) 사회적관계망과 실버타운 선호도간의 상관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실버타운 선호도
가족관계	1	.428**	.095	.060
친구관계	.428**	1	.310**	.200**
이웃관계	.095	.310**	1	.263**
실버타운 선호도	.060	.200**	.263**	1

*p<.05 , **p< .01

단 상관계수의 크기가 큰 변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VIF검사를 수행한 결과 척도들의 값이 모두 1과 2상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실버타운 선호도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친구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r=.200, p<.01$) 이웃관계 역시 실버타운선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상관을 맺고 있고 있다($r=.263, p<.01$). 그러나 가족관계는 실버타운 선호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4. 사회적관계망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중년여성의 사회적관계망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중년여성의 실버타운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인 사회적관계망 변수는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이며, 연령, 학력, 건강상태, 소득수준, 직업 등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연구문제 1,2,3에 대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보면, 우선 회귀모형은 유의하게 판명되었으며($F=4.501, p=.000$) 모형의 설명력 $R^2=.378$ 이다.

1) 연구문제 1에 관한 가설검증

실버타운 선호도에 중년여성의 가족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 하였다. 독립변인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가족관계는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322, p=.748$). 따라서 중년여성의 가족관계 정도가 좋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는 낮아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1은 기각되었다.

2) 연구문제 2에 관한 가설검증

실버타운 선호도에 중년여성의 친구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면, 친구관계는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1.952, p=.032$) 중년여성의 친구관계 정도가 좋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2를 지지하고 있다.

3) 연구문제 3에 관한 가설검증

실버타운 선호도에 중년여성의 이웃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인의 영향 여부를 살펴보면, 이웃관계는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t=3.477, p=.001$) 중년여성의 이웃관계 정도가 좋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는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문제 3을 지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에서 실버타운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친구관계와 이웃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해보자면, 이웃관계의 회귀계수($B=.210$)가 친구관계의 회귀계수($B=.127$)보다 큰 것으로 보아 이웃관계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통제변수로서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그 결과 소득수준은($t=2.423, p=.016$) 실버타운 선호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력, 건강상태, 연령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직업변수는 명목변수이므로 dummy 변수로 처리하였으며 기준변수는 공무원집단이다. 분석결과 생산직/서비스직 등이 공무원집단에 비해 실버타운에 대한 선호수준이 높았다($t=2.189, p=.029$).

〈표 4〉 사회적관계망과 실버타운 선호도의
중다회귀분석

변인	b	S.E	Beta	t-value	p	
학력	-.308	.451	-.042	-.682	.496	
건강상태	-.362	.741	-.028	-.488	.626	
소득수준	.653	.270	.144	2.423	.016	
사무직 등	-.435	1.749	-.018	-.249	.804	
인구 사회 학적 변인	자영업	-.789	1.673	-.038	-.472	.637
	직 전업주 업 부	2.302	1.382	.157	1.666	.097
	생산직 등	3.367	1.538	.193	2.189	.029
	기타	1.796	2.239	.053	.802	.423
	연령	.386	.462	.047	.837	.403
	가족관계	-1.5E -02	.046	-.020	-.322	.748
독립 변인	친구관계	.106	.055	.127	1.952	.032
	이웃관계	.152	.044	.210	3.477	.001

Model : F=4.501, p<.05, R2=.378

V. 결론 및 논의

오늘날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 현상 및 가치관의 변화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볼 때 한국도 머지않아 미국이나 일본 등과 같이 유료노인주거복지시설인 실버타운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현재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중년 여성의 사회적관계망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료노인주거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실버타운 선호도 차이에서는 전업주부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직업변수의 분석 결

과 공무원집단에 비해 생산직/서비스직 등의 실버타운 선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친구(t=1.952, p=.032) 및 이웃관계(t=3.477, p=.001)는 실버타운 선호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족관계(t=-.322, p=.748)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본 연구에서 인구학적 특성 가운데 전업주부의 실버타운 선호도가 높았는데 이는 조사대상이 중년여성이라는 점과 응답자 중 전업주부의 비중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직업변수에서는 공무원 및 다른 집단에 비해 생산직/서비스직 등의 실버타운 선호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미래의 실버타운 개발 시 이들 직군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책 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가족관계의 정도가 좋을수록 실버타운 선호도는 낮아질 것으로 보았으나 가족관계가 실버타운 선호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못하였다. 이 같은 결과는 중년여성의 사회적관계망이 복지감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지나치게 친밀하고 가까운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도(Antonucci et al, 1998) 있고, 지금의 중년여성들은 가족관계를 중요시하면서도 자신들의 인생 역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녀와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친구관계는 중년여성의 실버타운 선호도를 설명해 주는 주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 결과 실버타운 선호도에 친구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친구들의 의견이 개인의 주거선택 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유료노인주거복지 시설 선택 시 친구관계가 주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선행연구(권희수, 1996; 윤연희, 1999; 김홍란, 2000)를 지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과거에 비해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금의 중년여성들은 자신들의 노후를 훨씬 더 의미 있게 보내려는 준비를 일찍부터 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친구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독립적이고 편리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버타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관계를 유지 혹은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실버타운 내에 동호인 주거동 등 친구관계의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테마형 실버타운을 제공하는 방안이 있는데 구역별로 등산동호회 주거구역, 골프동호회, 여행동호회, 혹은 기존의 친구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주택공급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넷째, 이웃관계 역시 실버타운 선호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년여성들에게 이웃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망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웃관계의 정도는 주요한 선택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Arling, 1976), 중년여성의 이웃관계는 사교적 지원 및 일상생활을 공유 한다(신기영, 1990)는 선행연구와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으며, 이웃, 친구와의 교류를 위해 중년기 때부터 거주해 오던 지역의 실버타운을 선택하고 있다는 Randolph Hill Nursing Center (1994)의 보고서를 지지하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 실버타운이 처음 보급되면서 전원형 실버타운이 노인들에게 적합하다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실버타운 개발정책은 노인들의 사회적관계망의 중요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정책으로 초기 실버타운 공급실패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중년여성들은 인간관계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가족, 친구, 이웃 등은 이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고 나이가 들수록 그러한 사고는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이 같은 고려가 없는 실버타운은 노후주거복지시설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다. 최근에 공급되는 실버타운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원형보다는 기존의 사회적관계망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교통이 좋아서 1시간 내지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는 도심 혹은 도시근교³⁾에 집중적으로 건설되고 있다. 이는 자녀와 별거는 하여도 가능한 한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고, 교통이 편리하여 친구나 이웃 등 사회적관계망을 지속할 수 있는 실버타운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이를 반영하여 서울 및 경기도를 중심으로 실버타운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을 찾아보면, 우선 중년여성의 실버타운 선호도를 연구할 때 사회적관계망 뿐만 아니라, 다른 요인들도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즉, 시대에 따른 가치관이나 의식의 변화, 주거형태의 변화 및 생활양식의 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양식에 의해 주거양식의 선호도 역시 변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밝힌 바 있듯이, 한국 중년여성의 정서상 사회적관계망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우선적으로 고려될 요인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회적관계망만을 살펴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는 다양한 변인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3) 대표적인 도심 혹은 도시근교형 실버타운으로 수원외 노블카운티, 신당동·분당 시니어스 타워를 비롯하여 SK 그레이스힐(서울 강서구), 가야 시니어스 타워(서울 강서구), 명지 엘펜하임(경기 용인), 신성 아너스밸리(서울 평창동), 대주 클라시온(서울 은평구), 보남자 라이프(경기도 안성) 등 다수의 도심형 실버타운이 건설 중에 있다.

판단된다.

둘째,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실버타운은 유료양로시설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이 현재 실버타운에 입주하고 있는 여성노인들이었다면 사회적관계망과 실버타운 선호도의 관련성을 매우 잘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실버타운은 아직 보편화된 노인주거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실버타운에 입주할 가능성이 있는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그러므로 실버타운에 입주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사회적관계망이 실버타운 선호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관계망을 고려한 좀 더 현실적이고 의미 있는 실버타운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 및 수도권 신도시로 국한되었으므로 전국의 중년여성으로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관계망 중 중년 여성의 가족관계 정도가 실버타운선호도를 설명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7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07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08월 27일

【참 고 문 헌】

1) 고정자(1980).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대학원 논문집, 14(15).
 2) 고정자(2001). 노인복지학 개론. 서울: 형설

출판사.

3) 김영부(1990). 실버타운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4) 김인숙(1994). 시부모와 별거하는 핵가족의 3대 동거계획.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김홍란(2000). 유료양로원 거주노인의 입소 배경과 인간관계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 박승희(2002). 주요사회복지정책론의 가족위기 대처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사회복지정책 14, 75-80.
 7) 송석린(1998). 고령화 사회와 실버산업. 서울 : 대산출판사.
 8) 윤연희(1999). 유료양로원 입주노인의 생활실태 조사연구. 중앙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9) 윤희영(2000). 실버타운 거주노인의 거주경험과 자녀와의 관계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0) 원윤희, 윤기열(2001). 실버서비스 산업의 이해. 서울 : 백산출판사.
 11) 이경희(1988).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주부의 사회적관계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2) 이인수(2003). 실버타운의 개발전략. 서울 : 21세기사.
 13) 이영옥(1997). 친구관계에 대한 행동 및 정신적 기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이정애(1998). 노인의 친구관계와 일상적 사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5) 이순목(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 교육과학사.
 16) 정경희(1998). 노인생활실태 및 욕구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8-69.
 17) 최순남(1995).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서울 : 흥익제.
 18) 최혜경(1995). 심신기능이 손상된 노인가

- 족의 요양원 이용 의사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6.
- 19) Ajzen, I., and M. Fishbein.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20) Antonucci, T. C., Akiyama, H., & Lansford, J.E. (1998). Negative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 *Family Relations* 47(4), 379-384.
 - 21) Arling, G. (1976). The elderly widow and her family, neighbors and frien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757-768.
 - 22) Boot, E. (1971). *Sex and social network*, Tavistock publication.
 - 23)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Inc, 266-268.
 - 24) Hawkins, D. I., Best, H. J & Coney, K. A. (1983). *Consumer Behaviors Implications for Marketing Strategy*, 3rd ed., Business Publications Inc.
 - 25) Litwak, E & Szeleny, I. (1969). Primary group structures and their Function: kinship, neighbor and friend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34, 465-481
 - 26) Noelker, L., and Harel, Z. (1978). Predictors of Well-being and Survival Among Institutionalized Aged. *The Gerontologist* 18(6), 562-567.
 - 27) Plas, J. M. & Lewis, S. E. (1996). Environmental factor and Sense of community in a planned town.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109-143.
 - 28) Pynoos, J. (1993). *Housing the Aged*. London Elsevier Press.
 - 29) Randolph Hill Nursing Center (1994). *Annual Reports on Managements Series 2*. Wheaton, M. D. USA.
 - 30) Stevens, J. (1992). *Applied Multivariate Statistics for the Soci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 Erlbaum.
 - 31) U.N. (1990). *World Population Prospects: Estimates and Projections as Assessed in 1990*. New York U.N.
 - 32) Usui, W. M. (1985). Homogeneity of friendship networks of elderly blacks and whites. *Journal of Gerontology* 39(3), 350-356.